

총무원장 자승스님-캄보디아 국왕 환담

불교중심 양국 우호증진 ‘공감’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노로돔 시아모니 캄보디아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 간의 우호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50분(현지시간) 프놈펜 왕궁에서 시아모니 국왕을 예방하고 30분간 환담을 나누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왕의 현명한 정치와 덕화(德化)로 인해 캄보디아가 날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캄보디아와 한국은 형제국가로 양국불교계를 중심으로 우호증진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씨엘립에 있는 BWC를 중심으로 어린이와 지역주민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왕께서 깊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로돔 시아모니 국왕은 “캄보디아는 오랜 불교 전통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고,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불교가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BWC가 형편이 어려운 캄보디아를 위해 도움을 주는데 대해 왕실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총무원장 스님과 캄보디아 국왕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진행했고, 상호 선물을 교환하며 우의를 돈독히 했다.

국왕은 총무원장 스님 일행을 왕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사진 왼쪽)은 지난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왕궁에서 시아모니 국왕을 예방, 양국 간의 우호증진 방안 등에 대해 환담했다. 국왕은 총무원장 스님을 왕궁 본관 현관에서 맞이하고, 왕궁 정문을 나설 때까지 현관에서 직접 환송하는 등 각별하게 예우했다.

한 “어린이·지역주민 위해 노력”

캄 “BWC 도움, 왕실 대표해 감사”

궁 본관 현관에서 맞이하고, 환담이 끝난 뒤에는 일행이 왕궁 정문을 나설 때까지 현관에서 직접 환송하는 등 각별한 예우를 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예방에는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제13

교구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제14교구 범어사 주지 정여스님, 화엄회장 성직스님,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 전 총무원 호법부장 정만스님, 영천 만불사 주지 학성스님 등이 배석했다. 또한 흡삼일 캄보디아 왕실

부총리, 민진 캄보디아 종교부장관, 이경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도 배석했다.

한편 총무원장 스님 일행은 지난 20일 씨엘립의 빈민지역인 피아산 캉프봉 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용기를 잃지 말기를 당부하는 등 민간외교사절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관련기사 6면

캄보디아 프놈펜=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위기관리·대처 능력 강화한다

조계종 기획실 “상반기는 4개년 발전계획 시작단계”

20일 ‘상평하계’ 발표

‘주지인사고과제 시행, 토지처분금 효과적 활용, 승가교육 개선 등의 사업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다만 현안에 대한 대응과 위기관리능력이 부족했다.’ 제33대 조계종 집행부가 올해 상반기 중무행정에 대해 스스로 내린 진단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총무기관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11대 핵심과제와 25개 주요과제 각각의 성과와 추진 정도를 개괄한 뒤 전체적인 총평과 향후 과제를 담았다. △결계포살

제도의 정착 △주지인사고과 △토지처분금 활용 △승가교육 개선 △승가교육 개선 △화쟁위원회 구성 △국제선센터 개원 △지역포교 활성화(전법단 창립) 등 8개 과제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획실은 “상반기는 종단 발전 4개년 계획의 시작단계로 성과보다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준비단계”라며 “하반기에는 중요 사업의 계획 재수립과 현안에 대한 위기관리와 대처능력 강화, 기획조정 기능을 위 표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천명한 11대 핵심과제와 25개 주요과제 각각의 성과와 추진 정도를 개괄한 뒤 전체적인 총평과 향후 과제를 담았다. △결계포살

가 중요하게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2면

중앙총무기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무회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책의 수립, 핵심주요과제 점검 등 중요 사안에 대한 토론과 의사결정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례브리핑은 과제별 평가와 계획을 정리한 자료 배포와 김영일 기획처장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이번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계획은 조기에 로드맵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하는 총무원’을 표방하는 현 집행부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혜성스님 학우스님 근식스님

명예회복·의료 지원 받는다

심의위, 10·27 법난 피해자 추가 인정

서울 도선사 회주 혜성스님을 비롯한 3명의 스님이 10·27법난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국무총리 소속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단스님, 조계종 총무부장)는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혜성스님(당시 도선사 주지), 학우스님(당시 공주 마곡사 재무), 근식스님(당시 밀양 표충사 재무)을 법난 피

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스님들은 1980년 10월 27일 법난 당시 신군부에 의해 최소 열명에서 한 달 동안 합동수사본부 및 보안부대에 강제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지금도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스님들은 앞으로 명예회복과 의료지원 등의 보상을 받게

된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가 불교계를 정화한다는 명분 아래 전국 5731곳의 사찰과 암자에 난입해 스님과 재가자 등 1929명의 불교계 인사들을 무단 체포한 조유의 불교탄압 사건이다.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008년 12월 30일 발족한 민간 합동기구다. 현재 재가자 38건의 피해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법난 관련 피해건수를 2000여 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영단스님을 비롯해 전체 11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장영섭 기자 fuei@ibulgyo.com

“개신교 사학, 국가예산으로 선교”

연사연 “교육부, 2008년 4300억원 지원” 지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장로회총연합회 등 개신교 단체들의 “불교계가 정치권과 유착해 국민 혈세를 포교에 사용하고 있다”는 신문 광고와 관련,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 네트워크가 교육부의 재정결함한국보조금을 예로 들며 개신교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연경사회문화정책연구네트워크는 지난 22일 서울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기독교 단체가 나선 이번 광고에서 개신교 단체들은 불교문화재 보수비와 템플스테이 예산을 거론하면서 ‘불교계가 국민혈세를 불교포교에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대해 연사연은 교육부가 종교사학에 지원하는 재정결함한국보조금을 사례로 들며 “2008년 한 해에만 교육부의 재정결함한국보조금을 통해 4300여 억원이 개신교계 종교 사학에 지원됐다”고 설명하며 “국민혈세로 선교행위를 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는 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사연은 “불교계에 지원되는 문화재보수비는 100% 유지보수에 사용되지만 기독교 사학에 지원되는 재정결함한국보조금은 대부분 인건

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교행위에 국고보조금, 즉 국민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사연은 “이와 같은 기독교 단체의 불교말살기도에 대해 조계종단과 불교계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종교사학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에 이어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기관의 종교계 예산지원을 분석해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사연은 불교자주실천운동본부의 연구네트워크로, 김영국, 서동석, 이영근 씨 등 12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염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社 告

불교자원봉사 전국네트워크사업 “자원봉사로 자비실천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불교신문은 불교자원봉사 활성화와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불교자원봉사 전국네트워크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사찰 자원봉사단을 결성 및 활성화하고, ‘교구본사별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 각 사찰 자원봉사단을 지원

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사회공헌을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보살행을 위한 ‘전국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과 ‘교구본사별 자원봉사센터 설치’ 등에 각 지역 사찰스님과 신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2010년 12월 31일까지

△ 주 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불교신문사

△ 문 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 전국사찰순회 자원봉사교육

△ 교육: 자원봉사 기초교육(사찰방문 1일 교육)

△ 대상: 전국 사찰 및 신행단체(단, 수강자 30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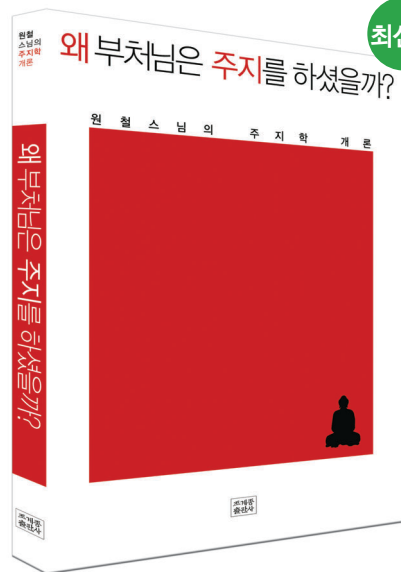
■ 교구본사별 자원봉사센터 설치

△ 각 교구별 자원봉사활동 내용, 조직,

센터 설치 의향 조서 후 추진

선어록에 나타난 주지 비결의 한 방을 전수하라!

선어록에 기록된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들의 면면을 보면 역시 ‘선사’답다. 시의적절 카리스마를 뽐내며 도량을 일으키고 주지로서의 책무를 다한다.



원철스님의 주지학 개론

왜 부처님은 주지를 하셨을까?

글 원철 176쪽 값 9,000원

● 주지의 어원과 뜻풀이부터 주지에 얽힌 각종 에피소드까지 재미와 교훈을 담아 펼친다 -조성일보 ● 스님은 ‘주지’를 어떤 심정으로, 어떤 수행자적 관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없다”고 꼬집는다 -중앙일보 ● 주지는 대중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중도 주지론’을 전한다 -세계일보 ● 불교에서 ‘승려의 꽃’으로 통하는 주지 역할에 대한 계언을 담고 있다 -서울신문 ● 주지에 대한 이모저모와 바람직한 주지상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일보 ● 여러 사례와 일화들은 주지가 결코 사판승에 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책의 의도를 잘 보여준다 -연합뉴스 ● 스님이 이 결코 쉬운 주제에 뛰어들어 본격적인 주지론을 펴냈다 -한국일보 ● 사판승의 상징이자, 한 사찰의 행정적 대표인 주지가 어떤 심성과 사상, 자질,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전하는 책이다 -경향신문 ● 옛 선사들의 어록과 사례를 토대로 주지가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 윤리와 규범 등을 제시 한다 -한국경제 ● 이 책을 올 여름의 부채로 삼으면 삼복더위쯤은 심심찮게 보낼 수 있으리라 -오마이뉴스

이걸 어떻게 공부하냐
주지를 하자는 말이야
고민도네



선사들에게는 배워서 카리스마를 더